

# 한반도 통일선교신학

##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병수\*

### I. 서론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 후 70년이 지났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조국으로 귀환하는 역사를 회고하면서 대한민국이 전쟁과 분단 70년이 되는 2020년 이후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해로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구약의 열왕기·역대기·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 우상숭배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칼과 기근과 역병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과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소망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한반도의 통일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

\* 고신대학교 선교학 교수

것 같았도다”(시126:1)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동일하게 기대했다.

이런 통일에 대한 기대는 마치 벽시계 추가 좌우로 반복되는 그런 희망과 절망의 반복적 추세였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널 띄기 하는 것 같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망은 롤러 코스터였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말의 공산주의 중추세력인 소련의 해체, 동구 공산권의 붕괴, 1990년 독일통일을 계기로 대한민국도 곧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가 그 열기가 점차 식어갔다. 그 후 1994년 7월의 김일성 사망과 그 이후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으로 북한정권이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북한정권이 한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를 이루는 비록 ‘악의 축’이라는 오명도 받았지만 정상체제의 국가였던 것이다.

이런 북한에 대한 접근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의해 조금 더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적극적 대북정책을 취하는 가운데 통일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하였다. 하지만 2018년도 판문점 선언 이후, 최근 개성공단 폭파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반응을 보면서, 통일이 다시금 요원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연세대 교수 박명림의 지적처럼 “한국전쟁 당시 최초 격전장이자 최후 협상 장소였던 개성의 한 건물 폭파가 상징하는 오늘의 한반도 상황을 직시할 때, 지난 70년은 완숙과 충분은커녕 우리들의 미숙과 몽매가 너무도 크다는 점을 먼저 성찰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70년 포로생활을 감내한, 오페라 <나부코>

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뒤집어서 불러야 할지 모른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들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헛된 환상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현실적 통일에 대한 입장을 지니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에게는 장차 통일에서 부담될 경제적 이유 때문에 통일담론에 대해 더 부정적 입장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이상론과 현실론이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통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통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희망고문’에 지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통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통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단지 남북한의 두 국가체제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가? 아니면 어떤 희생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인가? 전자의 입장에서 많은 학자들 중 통일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평화가 먼저 정착하면 자연스럽게 통일의 기회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화정착을 생각하는 가운데 통일을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 가운데 두 국가로 존재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존재한다. 필자의 주장은 그런 현실적 입장은 유지하되 한민족의 통일이라는 것을 한 순간도 잊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점에서 독일통일을 반면교사로 생각해볼 때, 독일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교회’라는 것을 초지일관 유지했던 동서독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을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넘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보편적 우주적 입장을 지녔지만,

그럼에도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넘쳐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로마서 9-11장에서 확연하게 볼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1-3). 이런 점에서 한민족복음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매우 절실하게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 II. 통일선교신학은 믿음·소망·사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 통일과 관련하여 교회와 목회자 및 평신도들이 통일신학 및 통일선교신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려대와 동국대는 오래전 통일관련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천착하였으며, 경남대가 운영하는 북한대학원대학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통일선교신학은 통일의 어려움과 현실적 문제들을 냉정하게 직시하되 성경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통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인간의 책임을 다하되 그것에 대해서 믿음·사랑·소망이라는 성경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일보다 평화가 먼저라고 강조한다. 그 부분은 필자도 인정한다. 하지만 한반도가 평화의 우선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심각한 위험은 통일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통일에 대해 체념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 가운데 “무관심과 무감동과 체념의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직신학자 다니엘 L. 밀레오리(Daniel L. Migliore)는 “체념이란 인간 역사의 사악한 세력에 무조건적으로 묵종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무엇인가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더 정확히 말해 무엇인가 더 나은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심하고 비웃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와 다른 이들이 경험하는 이 불의, 공동체와 사회가 부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이 전쟁과 억압에 대해 뭘가를 말하고 행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삶은 혼란스럽고 불공평하며, 전쟁과 가난은 영속적이고 불가피한 실재라는 사실에 그저 익숙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로 우리는 운명에 체념한다. 그러면서 내일도 오늘과 똑같으리라고 말한다. 이런 체념의 결과로, 더 큰 정의를 위한 작은 기회들과 평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조치들이 무시되거나 냉소적으로 일축된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서의 우리 운명을 부인하는 거짓된 증언이다.”<sup>1)</sup>

따라서 한국교회는 통일과 북한선교에 대해 이와 같은 체념, 무력감과 자괴감을 떨치고 통일과 북한선교에 대해 보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며 전향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이유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북한에 대한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롬 15:13)이 분단의 고통과

---

1) 다니엘 밀레오리, 신옥수 역, 『기독교 조직신학개론』(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274-5.

아픔 속에 신음하는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소망의 예는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가 되는 내용이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에스겔 37:12)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회복되고 부흥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남북한이 하나 되어 열방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북한선교 및 통일선교는 지난 민주 정부들의 통일정책을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

### Ⅲ. 통일선교신학이란 무엇인가?

필자는 고신대학교에서 수년전 ‘통일선교’라는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왔다. 처음에 그 과목을 개설하기 전, 제목을 생각하던 중 ‘북한선교’, ‘통일신학’, ‘통일선교’라는 세 가지 제목 중 어떤 것으로 과목을 개설할 것인지 고민한 적이 있다. 필자가 속한 학과가 국제문화선교학과이기 때문에 선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 통일신학은 적절하지 않고 북한선교와 통일선교를 두고 고민하던 중 동료 교수가 통일선교가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필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통일선교라는 제목으로 과목을 개설하였다. 최근 ‘평화통일드림포럼’에서 한 통일 전문가와 대화 중 통일신학과 통일선교신학의 개념 정의도 필요하다는 제의를 받고 통일선교의 개념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되었다. 필자에게 있어 통일신학과 통일선교신학의 차이점은 통일신학

이 남북한 통일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통일선교신학은 북한선교 및 남북한 통일만을 선교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을 넘어 남북한 통일을 통해 열방과 세계를 선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남북한 통일 자체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복음으로 이루어진 남북한 통일을 통해서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점에서 통일선교신학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기초 하에서 통일선교신학이 다뤄야 할 과제들로는 첫째, 화해와 통일이라는 주제이다. 이것은 남북한 관계에서 정치적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 및 선교적 주제이다. 이유는 동족상잔의 비극은 미움과 증오의 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인 것 같지만 근원은 신학적 문제이다.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살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진실과 정의 및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용서 화해와 치유가 없이는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해, 인간과 화해, 자신과의 화해, 자연과의 화해를 강조한다. 이러한 화해 없이는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통일을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화해론에 기반한 통일’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 간에 공존하는 체제 이념적·대립적 요소들 가운데 기독교와 공산주의·마르크스주의·민족 주체사상이 어떻게 대화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으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기독교윤리와 정치신학의 견지에서 진술할 필요도 있다. 70년 이상 분단된 남북한 상황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체제 이념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념적 이해를 위한 노력과 그것에

대한 선교적 노력으로서 변증적 선교도 매우 필요하다. 셋째, 대한민국에서 통일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평화와, 통일보다 평화가 우선이라는 주장 사이 즉 평화와 통일의 상호관계를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신학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통일된 한반도를 통해 열방에 하나님나라 완성을 이루기 위한 신학적 작업”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이에 대해 육하원칙으로 살펴본다면

## 1. 하나님의 선교(누구)

“한반도의 통일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사람 중심이 될 때 이데올로기, 정치·경제 및 인간 이해관계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펼칠 때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독일통일의 예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흔들림 없는 통일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

## 2. 복음통일(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한반도 통일을 할 것인가?,” “성경이 아닌 다른 이념을 가지고 통일 문제를 접근해선 안 된다.” 북한을 향해 접근하는 전략이 다양할 수 있으나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통일선교신학이 지향해야 할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물론 통일에 대한 일반적 다양한 접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반은총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방법들의 한계를

직시함으로써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중심잡고 나아가는 자세가 철저하게 필요하다.

### 3. 한반도와 하나님나라(어디서)

“통일신학은 한반도와 하나님나라의 관계를 연구”해야 하며 통일이 되어 남과 북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도록 해야 한다.

### 4. 성령과 전략(어떻게)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복음화를 위한 ‘어떻게’는 전략에 속한다.” “먼저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하고, 실제적인 전략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계획을 매우 치밀하게 세웠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민감한 선교적 대응<sup>2)</sup>도 한 점을 고려해서 남북한 통일문제를 접근할 때 면밀한 준비와 함께 변화무쌍한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남북한 문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응하는 선교전략이 되어야 한다.

### 5. 이미와 아직(언제)

선교학적으로 볼 때 선교와 종말은 항상 함께 간다(마 24:14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흑자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 끝이 어디인가

---

2) 인터넷 신문 참조.

질문하는 중 그곳을 북한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통일선교의 시기에 대해서는 종말론적 창조적 긴장 속에서 통일이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이라는 입장을 지니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탈북민들이 이미 3만여 명이나 남한에 들어와 있는 현실을 볼 때 통일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면서 “아직 분단이지만 진정으로 한국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북한 동포를 사랑할 때 ‘이미’의 통일을 앞당겨 누리게 되고, 보다 자연스럽게 그 바라던 ‘아직’의 통일도 현실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6. 교회의 사명(왜)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교회가 몇 가지를 생각한다면 첫째, 한반도가 우상숭배를 버려야 한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숭배 체제 및 민족주체사상의 우상을 버리고 남한은 맘모니즘이라는 돈과 탐욕의 우상을 버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삼기 위함이고, 둘째,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다.

끝으로 통일 선교 신학은 한반도를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전문가는 “한반도를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로 만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선 복음으로 통일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복음통일은 성령의 역사이며, 나아가 교회의 사명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며 “교회의 사명은 ‘열방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선교신학의 목적은 통일된 대한민국이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 즉 선교적 통일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언급은 사도 바울에게 잘 나타나 있고, 존 스토틀은 “바울의 사역은 제사장 사역이었다.”<sup>3)</sup>라고 주장하는데, 이 내용은 다음의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롬 15:16). 이 복음의 제사장 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아프간 사태의 비극을 보면서 열방을 주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통일한국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이 중앙아시아의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한다. 통일한국이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 북한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이슬람의 압바스 왕조(AD 680~750) 때인 722년, 지금의 카자흐스탄의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배하는 가운데 이슬람화 되었다. 그 지역의 대표적 무슬림 국가들이 우즈베키스탄(인구 약 3천 2백만, 무슬림 88퍼센트), 아프가니스탄(약 3천 6백만, 무슬림 99.7퍼센트), 카자흐스탄(약 1900만, 무슬림 73퍼센트), 키르기즈스탄(인구 660만, 무슬림 80퍼센트), 투르크메니스탄(인구 610만, 무슬림 90퍼센트), 타지키스탄(인구 약 900만, 무슬림 98퍼센트)이다. 이들을 위한 선교노력들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선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음화·산업화·민

---

3) 존 스토틀, 『로마서 강해』, IVP, 506.

주화·선진화를 이룬 것은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문명의 충돌』의 저자 미국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그가 작고하기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강연하는 가운데 동북아 평화는 한국이 중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를 동북아에서 가장 복음화된 대한민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 및 북한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동북아가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평화에 이르는 길이지 않겠냐고 제안한 적이 있다.

특히 북한선교는 북한을 선교의 전진기지로 사용하여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및 유럽의 재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다. 수년 전 시니어 선교 한국대표를 역임했던 이시영 장로는 필자와의 대화에서 북한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경건, 특히 순교적 신앙이 무슬림 및 세계선교에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는 북한의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합쳐 통일이 되면 2040년 한국경제가 독일과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물론 그런 경제적 효과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에게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적 차원도 매우 중요하다. 중앙아시아는 터키와 이란의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다. 종족적으로 투르크계와 페르시아계, 종파적으로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의 충돌로 서로의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북한과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된다면 중앙아시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도 남북한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해 더욱더 진력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도록 한국교회 모두가 함께 기도하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0).

복음통일,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사도 바울의 비전은 에베소 교회만의 통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통일 우주적 통일을 지향한다. 동서독의 통일은 하나님께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역사적 사례로 보여준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이 전 세계의 통일에 하나의 모범사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리라 믿고 기대한다. 그래서 분단 상태에 있는 키프러스의 통일, 시리아 및 예멘 등 두 개로 나누어진 나라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소망한다.

#### IV. 통일선교신학 접근 방법

역사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성경에 기초해서 조직적인 신학을 복음적 및 실천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본 논문은 역사·성경·조직신학과 선교학적 접근을 취할 수 있다. 평화통일 선교신학 없는 통일은 시행착오, 반복적 실패 및 엄청난 혼란으로 야기된 통일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교회로부터 통일에 대한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통일 및 북한 문제로 남남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잘못된 정책은 국가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교회적·개인적 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그 기초에

해당하는 평화통일 선교신학은 매우 중요하다. 이 신학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통일선교와 관련한 세 가지 중요한 선언문<sup>4)</sup>을 역사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관련된 성경을 분석하고 신학적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 1. “평화통일에 관한 기본선언”

통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서로 88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1988년에 발표된 이 선언문은, 냉전구도가 진행되던 당시의 상황에 비해서 상당히 진보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선언이다. 대표적 통일신학 전문가 주도홍은 88선언은 “잠자는 한국교회의 통일 논의를 깨우는 촉매제”<sup>5)</sup>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김홍수는 이 선언문이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과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관계를 통해 교회의 의제가 남북한 교차관계를 돌파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지적한다.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문”은 1988년 연동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교협의회(NCCK) 제37차 총회에서 발표되었고, 박정희 정권의 7.4 공동성명으로 나타난 전향적 남북관계의 기독교적 반응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통일선언과 민족화해라는 명제를 강조했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은 서론과 함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본 서론은 역사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주시고

---

4) 세 가지 선언문은 필자가 이상은 「화해론에 기반한 통일」(나눔사), 60-86참조.

5) 주도홍, “통일로 향하는 교회의 길,” 190. 이상은 「화해론에 기반한 통일」에서 재인용 78.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또한 파송하는 성부, 십자가 신학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선교의 주체이며 결단의 주체이신 성령에 대한 고백을 담음으로써 삼위일체론적 구조 속에서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 가는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의 성령이 한반도의 역사와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 속에 함께 하셔서 온 교회가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 되어 일할 수 있도록 선교의 결단을 하게 하신다.”<sup>6)</sup>

둘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다루며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화평의 종(엡 2:13-19)으로 고백하며 분단과 갈등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화해와 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으로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인간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며 해방시킴으로써 하나 되게 하려는 데 있다고 고백한다.

셋째, 본 서론은 선교와 파송이라는 대 주제 하에 부름 받은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 하며,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소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마 5:9).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종말론적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요 14:18-21, 16:13-144, 17:11).<sup>7)</sup>

---

6) 이덕주·조이제 편,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서울: 한들, 1997), 397.

그에 따라 선언문은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또한 남북을 분단된 대립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천명하고 있다.

## 2.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한국교회 선언”

2010년에 발표된 이 선언은 88년 선언의 연속선상에서 한국교회의 선교사명을 천명한 것으로 한국기독교협의회(NCCK)의 발표문이다. 이 선언문은 평화통일을 위한 큰 원칙을 제시하는 가운데 다섯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평화통일에 관한 한국교회의 선교사명을 우선적 의제로 다루고 있다. 본 선언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서 88선언이 주장한 화해와 교류의 가치의 회복을 통해 남북한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강조한다.

둘째, 이 선언문은 이 땅에서 성취될 통일이 하나님나라의 비전과 직결되는 일임을 선언하고, 통일된 남북비전은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하나님나라의 비전과 일치되어야 하며, 평화통일운동은 하나님나라의 실현을 구현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셋째, 구체적 원칙과 방안으로는 북한을 통일의 단순한 수동적 대상자가 아니라 함께 통일을 이루어가는 동반자로 그리고 통일을 이미 이루었다는 자세와 태도로 통일 과정과 이후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

7) 위의 책, 398.

고민하는 ‘통일 선취론’(주도홍 교수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었다.

넷째,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10대 과제로 6.15공동 선언의 이해, 한반도 비핵화, 냉전구조의 해체와 평화체제의 수립, DMZ 평화공원 조성, 인도주의에 입각한 북한주민 지원, 통일기금 마련, 경제협력강화, 인도주의적 왕래, 활발한 민간교류, 주변국들로부터 지지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이 선언문은 평화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실천방향과 다짐하면서 한국교회가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사명으로 믿고 실천하고, 교파와 교리의 차이를 넘어선 연합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협력사업 강화, 화해와 평화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공동체로 설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겸손한 실천자로 활동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 3. 한국교회의 통일정책 선언문(1996년)에 반영된 의제

이 선언문은 1996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일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평화통일과 북한 복음화라고 하는 문서에 담겨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창조주이자 섭리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 둘째, 민족의 통일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은혜의 산물이며 우리에게는 믿음의 화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이 선언문이 강조하는 것은 남북통일의 과업이 궁극적으로 선교를 위해 필요한 중대사라고 고백하는 점이다. 통일한국의 모습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통치하는 민족공동체로 자유와 평등의 하나님나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선언문의 강조점은 통일한국의 궁극적 목표는 복음한국이며 복음한국이 열방과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위의 세 선언문을 살펴보면 남북 평화, 통일, 선교 및 하나님의 나라 구현 등의 용어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세 선언문은 한반도 평화통일 선교신학의 기초를 제공하고 그 발전의 가능성도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발표자는 선행 연구에 이어 한반도 평화통일 선교신학의 새로운 탐구주제를 제공하고자 한다.

## V. 성경신학적 기초: 평화, 통일, 십자가 및 선교

평화통일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다. 그러면 그 당위성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필자는 그 성경본문을 에스겔 37장, 이사야 9장과 11장,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찾고자 한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일의 가치를 두고 통일은 민족 구원론이며 열방 구원 및 우주적 교회론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목표로 한다.

### 에스겔

에스겔 37장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가 됨의 예언적 가르침과 남북한 통일에 주는 의미가 가능한가?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으로 멸망당할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위로와 소망과 희망 가운데서 보여준다. 필자는 본 논문의 취지를 위해서 영국의 대표적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의 에스겔 주석을 참고하는데, 그는 에스겔을 선교적 관점<sup>8)</sup>에서 전개한다. 필자가 참여하는 부산역 통일 광장기도회에서 한 설교자가 남북통일의 신학적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성경 본문을 에스겔 37장 17절에 기초해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 본문은 잘 아는 대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실물로 보여주신다. 그런데 이 본문이 오늘 한반도 통일선교신학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본문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이고 지리적인 것이기보다는 신학적인 것이었고 혹은 교회론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그 말씀을 한반도 남북통일의 목표와 비전으로 그 본문을 차용할 수 있다고 본다. 솔로몬 이후 북왕국은 2백여 년 동안(주전 930~722) 19명의 왕들이 통치하고 남왕국 유다는 350여 년간(주전 930~587 /86) 20명의 왕들이 통치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으로 멸망하기까지 그들은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한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리되는 이유는 솔로몬의 우상숭배 및 이방여인들을 통한 온갖 범죄, 그리고 르호보함의 억압적 폭력 및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였다. 결국 이처럼 두 나라가 망하게 된 역사를 통해 남북한이 통일되기 위한 교훈을 찾을 수는 없는가? 우상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돌아서는 것이 남북한이 하나 되는 길은 아닌지.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에스겔 주석에서 우상숭배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경제지상주의, 맘몬과 탐욕으로 본다. 만일 그렇다면 이런 물신주의 우상으로 발생하는 성적

---

8) 크리스토퍼 라이트 지음, 정옥배 옮김, 『에스겔 강해』(IVP), 25, 39, 158, 376, 381-382, 410.

및 도덕적 타락, 수많은 이혼, 높은 자살률이 지배하는 가운데 교회의 자성과 철저한 회개에서 남북한이 통일될 수 있는 실마리가 없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지서의 심판과 구원의 패턴처럼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고자 한다.<sup>9)</sup>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11절). 그러나 그 말씀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 귀환, 및 회복의 소망을 주신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강조하신다(14절). 우리의 남북한 통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스 4:6).

남북통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에스겔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 보여준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17절). 이 본문의 하나됨에 대한 강조는 히브리어 에하드(ehad, 하나)인데, 이 단어는 16절과 24절에서 11번 나온다.<sup>10)</sup> 그만큼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나됨을 성경적 관점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자.

첫째, 하나됨의 당위성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

---

9) 위의 책, 433.

10) 크리스토퍼 라이트, 439.

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에서 예수님은 하나됨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서술한 시편 133편 1절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구절은 하나됨의 ‘심미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의 효율성으로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됨의 ‘효율성’을 보여준다.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됨의 당위성과 심미성과 효율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쟁과 폭력과 분쟁과 갈등과 혼돈의 세계에 모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통일과 관련한 에스겔 34:1-37:28절을 주석하면서 그 부분을 “에스겔 복음”<sup>11)</sup>이라 칭한다. 그리고 독재에서 신정으로 나아가는 부분(34:1-31)을 세 부분으로 주석하는데 첫째, 부패한 왕정의 제거(34:1-10), 둘째, 신정회복(34:11-22)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통치, 마지막으로 평화의 통치(34:23-31)이다.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범을 따를 수 없을까? 불의, 불평등, 부패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공의와 정의로 평화를 이루는 세상. 에스겔은 그의 환상의 마지막 절정부에서 목자와 왕이라는 주제(23-31절)에서 세 가지를 주목한다. 다윗 계열의 새로운 통치자(23-24절), 평화와 조화에 대한 새로운 경험, 충만하고 완벽한 살롬(25-29절),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관계에 대한 새로운 단언(30-31절)이다. 이것을 이사야의 평화사상과 연결해보자.

---

11) 크리스토퍼 라이트, 383.

## 이사야 평화사상

우리 모두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염원한다. 남·북한만이 아니라 위기와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동북아 및 아프가니스탄 등 전 세계가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미가서 4:3)라는 말씀처럼 “칼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를 희망한다. 이사야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이런 염원과 달리 한국의 상황은 반대로 간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의 평화사상을 이사야에서 살펴보자. 이사야는 신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있어서 탁월하다. 이사야 신학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하는 것은 평화사상이다. 이사야 11장은 평화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다. 평화의 모습이 6-9절에 잘 나타나 있다. 구약학자 월트 브루거만(Walter Brueggemann)의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간의 경험과 상상력으로 도저히 나오기 힘든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모습이 메시아 통치의 평화의 모습이다. 이 평화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통치자 왕은 첫째, 여호와와의 영으로 충만하고 둘째,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통치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시편 85편 10절이 잘 보여준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이러한 평화로운 국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먼저 교회가 이 말씀대로 살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영적·정치적 지도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배출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 점은 니콜라스 월트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가 자신의 논문 “공적 신학 혹은 기독교 학문”(Public Theology or Christian Learning)에서 설득력 있게 전개한 논증이기도 하다. 경제학자·정치학자·사회철학자 등의 조력자로 활동하지 않을 때는 신학자들은 사회적 구조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의롭고 진실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상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적 행위자를 길러내고 그러한 행위자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는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정의롭게 만드는 구조적 체제 변혁적 노력도 강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세계 군사비 지출 10위… 평화 위해 군비 축소 vs 안보 위해 늘려야”<sup>12)</sup> 라는 기사 자료에 의하면 군비 증감을 두고 시민·사회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은 431억 달러(약 50조 원)를 군비로 지출했다. 이는 세계 10위 규모다. 전체 예산 대비 2.4퍼센트, 국내총생산(GDP) 대비 2.6퍼센트다. 일각에서는 판문점 선언 1주년 등을 맞아 군비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정부는 국민의 삶 개선보다는 군비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부끄러운 수치”임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 예산개요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46조 7000억 원이다. 일자리 예산은 22조 9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

12) 쿠키뉴스, 2019-04-30.

20조 1000억 원, 환경 예산은 7조 4000억 원 수준이다. 50조에 이르는 국방예산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평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 천문학적인 금액이 더 선하고 생산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어거스틴의 평화사상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도 그 이상은 평화이다.<sup>13)</sup> 특히 그 책 제 19권은 “선의 목적으로 만인이 희구하는 평화”의 제목을 다루고 있다. 그 책에서 어거스틴은 “정치는 정의에 본질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의를 없는 왕국이란 거대한 강도떼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일갈한다. 이런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의와 정의의 지도자 출현을 위해 남북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 톨스토이의 평화사상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끔찍한 전쟁의 참상과 무의미함을 전달하고자 했고, 톨스토이 평론가 로맹 롤랑은 톨스토이 평전에서 전쟁과 평화를 우리 시대의 가장 방대한 서사시 현대의 “일리아스”라고 일컬었다.

### 요한 갈통의 평화사상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루기 위해 요한

---

13)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 제 1-10권, 성염 해제, 36.

갈등의 평화 개념을 차용하기도 했다. 몇 년 전 스웨덴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및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을 인용하면서 남북한의 상호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무지와 편견 때문에 갈등과 마찰이 발생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에 관한 선구적인 철학과 이론을 제시한 ‘요한 갈통’의 평화에 관한 두 가지 이론을 설명했다. 직접적 폭력과 전쟁이 없는 소극적 평화와 구조적 갈등 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이다. 그중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서로 간에 적대하는 마음이다. 무엇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구조적 갈등을 찾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서로 등 돌리며 살아도 평화로울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분단이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 심지어 국민의 사고까지 제약해 왔다. 그로 인해 경제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정치 문화는 경제 발전을 따르지 못했다. 이제는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 평화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때,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 동북아 이웃국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주도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다. 그 가운데 평화는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자 정의의

며, 경제적 번영을 위한 토대로 간주한다. 그것을 위해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장착과 능동적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해서 60년 넘게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 에베소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온 인류가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는데 그것을 우주적 영역으로 생각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0). 이 주제 하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됨을 강조한다. 이 통일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놓였던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으로 원수된 것의 중간에서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이루어진다(엡 2:13, 14, 16). 특히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원수된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원수가 되게 하리니’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 번역한 단어 ‘에크스란’과 같은 단어이다. 참혹한 6.25전쟁으로 서로 철천지원수 된 남북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용서와 화해로 하나가 될 수 있다.

## VI. 한반도 통일신학에 대한 정치신학적 접근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정치신학에서 “인간에게 정치는 저주인가 축복인가, 20세기의 정치를 되돌아보면, 정치는 인간의 삶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으며, 인간의 집단적인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sup>14)</sup>고 갈파한다. 여기서 그녀는 정치가 가져다주는 빛과 그림자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강조한다. 정치의 가장 어두운 면을 우리는 북한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 박해가 심각한 오명으로 1위이다. 그것으로 인해 받은 하나님의 저주가 기근과 빈곤이다. 탈북민이자 북한 군인 출신 이빌립 선교사는 일전에 필자에게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 중 그 저주의 모습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치의 양면을 정치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정치신학의 대표적 법학자인 칼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는 “현대국가론의 중요개념은 모두 세속화된 신학개념이다. 예를 들어 전능의 신이 만능의 입법자가 되었다는 식으로 여러 개념이 신학에서 국가론으로 옮겨갔다는 역사적 발전을 봤을 때만이 아니라, 이들 개념의 사회학적 고찰을 위해서 반드시 인식해야만 하는 체계적 구조를 봤을 때도 그렇다.”<sup>15)</sup> 슈미트 주장의 핵심은 정치란 세속화된 신학이라는 것이다.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에게는 “신학이 실제로 신성화된 정치학”이라는 것이다.<sup>16)</sup> 예를 들면 오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불평등, 공정, 공의 및 정의, 한일관계 및 남북관계에서 용서, 화해, 치유 및 회복이라는 신학적 주제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정책 결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화해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여러

---

14) 한나 아렌트,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

15) 칼 슈미트, 김항 옮김, 『정치신학』 (그린비), 54,

16)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정문영 옮김, 『왕국과 영광』 (새물결), 15.

학자들이 다룬다. 예를 들면 박성규의 『평화통일의 신학적 근거로서의 기독교 화해론』, 이상은의 『화해론에 기반한 통일』 등이다. 이상은은 그의 책에서 동서독의 통일에 칼 바르트의 화해론이 끼친 영향을 바르트의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 신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특히 칼 바르트의 “다름슈타트 선언”과 “바르멘 신학선언”이 동서독의 통일의 철학과 방향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을 강조한다.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의 제자이기도 하고 크로아티아 출신 예일대 정치신학자 미로슬로브 볼프(Miroslav Volf)는 용서가 가지는 정치신학적 의미를 그의 책 『배제와 포용』에서 다룬다. 그는 그것의 전범으로 오랫동안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영향을 받았던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설명하면서 언급한다. 볼프는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의 『예수의 정치학』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왜 십자가를 다루지 않았는지에 대해 지적한다. 그러면서 볼프는 오늘날의 지구상의 갈등과 전쟁 복수와 화해의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과 『생명의 영』이라는 두 권의 책을 언급하면서, 볼프는 여기서 “특별히 원수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들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주제를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sup>17)</sup>

그는 정치신학적 관점에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용서는 받는 대로 갚아주라는 식의 도덕률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 복수의 가장 치명적 문제점은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복수의 회오리이며 따라서 폭력은 복수를 지속시키며 복수는 폭력을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불가역성의 곤경’

---

17) 볼프, 34.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할 수 없었다고 해도 이미 저지른 일을 취소할 수 없음)이라고 하면서, 불가역성이라는 곤경에서부터 빠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sup>18)</sup>라고 주장한다.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삶에서 용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발견한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주장한다. 이 용서의 정치신학적 중요성을 볼프도 분쟁과 갈등과 폭력과 살인의 현장에서 강조한다.

더욱이 볼프가 살았던 크로아티아에서 세르비아의 인종청소라는 엄청난 비극 가운데서 크로아티아 출신인 볼프가 용서를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과 대한민국의 외교적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잡다단하게 얽혀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해결책은 진실·용서·화해의 길밖에 없다. 용서와 화해는 정치신학에서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도 중요하며, 더욱이 남북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정치신학의 맥락에서 최근 선교학의 주제<sup>19)</sup>들은 ‘폭력의 극복과 평화의 수립’, ‘환경에 대한 책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 등을 다룬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한반도 통일선교에서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 선교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선교학이 공적 신학의 주제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를 위한 교육 및 노력과 연습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교육에서 있어서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이다. 그는 자신의 책 『살

---

18) 한나 아렌트 지음,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300-308.

19) J. 앤드류 커프 지음, 최동규 옮김, 『선교란 무엇인가』.

를 위한 교육』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 VII. 남북한과 환경생태신학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COVID-19,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위기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가 서로 상관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기후위기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물을 인간 중심으로 보는 문제와 고삐 풀린 소비주의와 탐욕에서 발생한다. 이런 가운데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을 선교학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선교학자 J. H. 바빙크는 우리 주님의 명령, “이웃을 사랑하라”는 범위를 자연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동물 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 신약학자이며 해석학의 권위자인 앤서니 티슬턴(Anthony C. Thiselton)이 『조직신학』 책을 최근 저술했다. 그 책에서 “동물 창조와 동물의 지위: 창조는 인간 중심인가?”<sup>20)</sup>라는 제하로 동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심지어 동물신학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 학자 판넨베르크는 조직신학 2권에서 하나님의 세계의 창조, 보존, 통치 그리고 피조물의 세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sup>21)</sup> 몰트만도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sup>22)</sup>에서 생태계의 위기를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강조

---

20) 앤서니 티슬턴(Anthony C. Thiselton) 지음, 박규태 옮김, 『조직신학』, 187-202, 2018.

21)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지음, 신준호·안희철 옮김, 『판넨베르크 조직신학 II』 (새물결플러스), 83-126, 127-254.

하고 있다. 요나 4장 11절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시편 50편 10절 “삼림의 짐승들이 내 것이요 못 산의 가축이다 내 것이로다.” 동물 그리고 미래의 삶이나 미래의 구원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는 어느 학자는 성육신의 속죄의 효과에 장차 회복될 동물을 포함한 만물의 회복(롬 8:21)을 적용하기도 한다.

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공동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물자지원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민간차원의 대북협력 사업을 환경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남북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혀 가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한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한반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근 성공회대 ‘지속가능한 미래연구소’는 국내외 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민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반도 공통의 환경문제를 남과 북이 함께 고민함으로써 국민들 간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성공회대 학교 ‘지속가능한 미래연구소’ 이경래 소장에 의하면 “환경이나 교육이나 이런 문제들, 밑바탕에 그런 것들의 교류가 없으면 (통일은)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고민하는, 피부에 와 닿는 환경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고 이것을 남북 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환경 이슈에 대한 학술적 교류가 이뤄진 사례가

---

22) 위르겐 몰트만 지음, 김군진 옮김,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한국신학연구소).

소개되었다. 독일연방 환경재단의 이사 알렉산더 비트너(Alexander Bittner) 박사는 “서독과 동독의 통일 과정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학술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됐고, 이를 통해 양측의 시민단체들이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독일도 통일되기 이전에 이러한 환경문제나 자연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민간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북한도 새로운 교육과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교류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것 자체가 관계를 개선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퍼런스에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환경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유럽의 환경인증 제도인 이마스(EMAS) 도입과 생태교육 모델인 ‘숲 학교’가 제안되었다. 발제자들은 유럽처럼 인증제도를 통해 기업 활동의 에너지 효율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관리 감독해 친환경적 기업경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태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한편, ‘지속가능한 미래연구소’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해 독일 베를린에 가칭 ‘백두대간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술적 연구와 전문가 양성 활동뿐만 아니라, 생태교육 확대와 북한지역 산림 회복운동 등 다양한 민간 운동을 펼쳐가겠다고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연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함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자연에 민감하고 잘 반응하는 감성지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사이에 있는 38선 경계에 엄청난 자연 보화를 잘 가꾸어 세계적 생태환경 명소로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VIII. 통일선교에서 기도와 성령의 중요성

북한선교와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서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맡겨진 책임이자 의무이다. 필자는 2018년 여름 독일의 다름슈타트의 국제 디아스포라 포럼 학회 참석차 가서 알게 된 것은 독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한국의 남북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었다. 독일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부부는 자기 교회가 뮌헨에 있는데, 담임 목사가 브라질계 독일인으로 한국교회처럼 매일 노방전도, 금요철야 기도회와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도회 때마다 온 교회 성도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필자가 방문한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진젠도르프(Nikolaus L. von Zinzendorf, 1700~1760)가 모라비안 선교의 중심으로 활동했던 헤른후트(Herrnhut)의 한 교회에서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내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두고 있는 것을 필자가 보았다. 1727년경 헤른후트에서 모라비안 공동체는 세계선교를 위해서 “하루 24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기도가 이어졌으며 이러한 기도운동은 1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sup>23)</sup>고 한다. 이것은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선교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추측해본다. 필자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3) 루스 터커, 박해근 옮김, 『선교사 열전』, 86.

## IX. 교회의 역할

이런 기도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다. 독일통일도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동독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의 뤼러 목사를 중심으로 한 월요기도회로부터 통일의 염원이 확산되었고, 마침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비폭력 평화혁명(Friedliche Revolution)에 의한 독일통일의 기폭제가 된 월요기도회의 저변에는 보다 근원적으로 1945년 종전 후부터 통일을 이룬 1990년까지 양 체제 하에서도 독일민족에게 끊임없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교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지속해온 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부산역 광장에서 매주 월요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주도 멈추지 않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역 통일광장 기도회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도회의 시작은 필자가 속해 있는 고신대 국제문화 선교학과 학생이 고신대 안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다가 확장되어 부산역에서 하게 되었고, 부산지역의 뜻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참여하게 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필자도 그곳에 가서 여러 번 설교하기도 하고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 참석자 중 현재 목사인 제자는 7명의 자녀를 데리고 그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일 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또 다른 목사님은 자녀 6명을 데리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여기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남북한선교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많이 출산해서 국가에도 큰 공헌을

하는 분들이다. 이 모든 시작이 독일통일의 초석이 되었던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기도회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통일광장 기도회를 통해 대한민국도 독일과 같이 통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한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 X. 통일과 디아스포라 선교

통일은 남한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 한 동포가 전 세계 어디에서 생활하든 함께 노력하는 총체적 선교가 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좋은 선교방안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이루는 것이다.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북한선교에 전 삶을 바친 임현수 목사와 캐나다 한인 교회를 들 수 있다. 또한 북미만이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과 독일 및 유럽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북한선교 및 통일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디아스포라’ 현상은 현재 남한 인구의 13퍼센트가 해외동포로 살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매우 구체적인 적용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남과 북의 대립은 어찌면 양자의 관점이 아닌 제3의 관점 즉 ‘디아스포라’의 관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미 디아스포라인들을 중심으로 한 ‘연변과기대’의 성공적 사역과 그것의 확장으로 시작되고 있는 평양과기대의 설립과 사역은 교회가 아닌 회당 중심의 초기 기독교 운동, 그리고 우리의 선교역사에서 깊은 영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 사역을 통해 통일선교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네트워크와 플랫폼으로 구성할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 XI. 인권 차원에서 북한통일과 교회의 역할

통일의 목적은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독일통일 과정에서도 정치가 아닌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했다. ‘통일로 향하는 교회의 길’이란 주제로 최근 기독교계의 북한 및 통일 전문가 다수가 초청된 학술대회에서 고신대 손봉호 석좌 교수는 “기독교가 정당화할 수 있는 통일의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성경이 주린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보며 소외된 자를 찾으라고 명령했고, 고아·과부·나그네 등 약자를 돌보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정의라고 했다. 이어 손 교수는 “북한 주민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최악 상태의 약자들 가운데 하나”라며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기본 인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로 그는 “북한에 식량과 생필품을 보내야 한다.”면서 “옥수수 같은 곡물 형태로 전용 가능성이 적고 서민들의 굶주림 해소에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압력 행사는 물론 탈북민 보호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손 교수는 “한국교회는 정부의 정책보다 성경적 원칙에 더 충실해야 한다.”면서 “통일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고, 북한교회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교계문화를 정화하는 일도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XII. 교회의 탈북민 가족 자녀 교육 및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촉구<sup>24)</sup>

신명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관심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촉구한다. 특히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편애’할 정도로 관심이 많다. 최근 교육복지의 가장 약자로 소외되고 있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교육정책을 진단하고, 남북한 청소년들의 실질적 사회통합교육과 통일교육 및 교육제도 개선 방안이 여러 공론의장에서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면 탈북청소년에게 필요한 자활자립을 위한 통합교육 방안, 포스트 코로나19 탈북민 지원의 방향성 재고, 탈북청소년 교육과 지원의 방향, 탈북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 인식 및 기초학력 제고와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이다. 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체 교육기관 내 탈북청소년 2,538명 중 10퍼센트에 달하는 267명이 대안학교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학력저하, 신분노출로 인한 낙인 효과, 사회적응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이는 현장의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없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통일 이후의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기독교 탈북민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목사님에 의하면 탈북민 사역에 오히려 불교도들이 더 열심히 도와준다면 교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 가운데 한국에서도 부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와 가난의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두 가지 사건을 교회가 주목할 필요가

---

2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9449>

있다.

첫 번째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탈북민 42세의 여성과 6살 아들 모자가 굶어서 사망한 사건이다. 은행잔고는 0원이었고 냉장고에는 고춧가루 병만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는 강서구에서 얼마 안 되는 사회보장 급여만을 가지고 80대 노모와 50대 지체 장애의 형을 간병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고통을 느낀 동생이 형과 엄마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한 법조인은 이 죽음을 “사회적 죽음”으로 보았고, 우리 사회의 복지 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빈곤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이들을 국가가 최후의 안전망을 통해 끌어올려야 함에도, 한국의 공공부조 체계는 최후의 최후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이들의 죽음을 외면하고자만 것이다.” 그 죽음 현장에 한국의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서울은,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교회들은, 아니 강서구에 있는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적 역할과 사명을 잘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건을 우리의 무관심으로 생긴 비극적 일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 장로교회에 영향을 끼친 장 칼뱅(Jean Calvin)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들, 과부들, 피난민들에 대한 기독교적 관심을 집사직 디아코니아를 통해 제도화하고 법으로 입법화하였다.<sup>25)</sup>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의 “교회 재산은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됨”이라는 제목에서 “교회가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교회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절규했다(IV. iv.

---

25) 하비 콘, 한화룡 역, 『현대도시 교회의 전망』, 55-56.

8). 룯과 나오미의 빈곤을 보고 보아스가 인애와 긍휼로 이주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었던 긍휼이 한국교회에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명기 15장은 가난에 대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가장 모범적인 성경구절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신명기』 주석에서 이 장<sup>26)</sup>을 “빛 탕감과 종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이 장의 특징을 “온정과 긍휼”로 보았다.

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8.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

26) 크리스토퍼 라이트, 『신명기』(성서 유니온), 271.

죄가 되리라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주목을 요하는 말씀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고 교회가 그들을 위해 “네 손을 펼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스위스의 실천적 사상가인 장 지글러(Jean Ziegler)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하루에 10만 명이, 15초에 1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비타민 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3분에 1명꼴이고,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희망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 변화에 희망이 있다.”<sup>27)</sup> 그 희망이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희망 교회에 있다.

선교학자 J. 앤드류 커크(J. Andrew Kirk)는 『선교란 무엇인가?』에서 선교의 전통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새로운 선교주제<sup>28)</sup>로 “가난한

---

27) 장 지글러, 유명미 옮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갈라파고스), 23.

자들을 위한 정의”를 다루었다. 오늘날 한국과 세계 선교신학이 이 주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만 할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탈북민을 위해서: 빵과 정의!

“오 하나님, 굶주리는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  
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소서.”<sup>29)</sup>

### XIII. 마무리

우리는 통일선교신학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어떤 점에서 통일선교신학은 영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총체적인 선교이다. 존 스토틀(John Robert Walmsley Stott)가 지적했듯이, 선교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희생적 섬김으로 묘사했다. 북한을 위한 선교 곧 통일선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희생적 섬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십자가적 선교가 통일선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비록 고인이 되었지만 이 시대의 대표적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웬(Henri Jozef Machiel Nouwen)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

28) J. 앤드류 키크, 최동규 역, 『선교란 무엇인가』. 그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교학에서 다룬다: “폭력의 극복과 평화의 수립,” “파트너 십의 공유,” “환경에 대한 책임” 등이다. 환경의 중요성을 선교학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논의한 학자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이다.

29) 니콜라스 윌트스트로프, 홍병룡 역,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IVP).

상처 입은 자가 다른 상처 받은 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했다. 아마 이 제목은 사도 바울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후 1:4)라는 말씀에서 나왔던 것 같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이유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환난과 상처를 입은 나라이다. 일본의 침략으로 겪은 임진왜란, 청나라로부터 겪은 병자호란, 일제 36년 식민지 지배, 6.25의 동족상잔의 비극, 가난에 찌든 나라, 군사독재의 엄혹한 경험, 4.19 광주 민주항쟁, IMF, 세월호 사건 등 참으로 가난, 환난과 고난 및 상처가 많은 나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민족을 한의 민족이라고도 한다.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 한 서구 언론인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는 격이다.”라는 회의적 발언으로 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한국을 평가했다. 그런 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경제대국만 된 것이 아니다. 최근에 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이하 UNCTAD)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그룹 A(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의 지위변경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삼상 2:8) 하는 나라로 만드셨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 중 복음화로 그 모든 결과들이 이루어졌다. 복음화로 발생한 산업화,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루게 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더욱이 문화적 능력으로도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BTS,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지옥 등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적 능력과 불평등과 경쟁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시사성을 지니는 음악, 영화와 드라마로 엄청난 소프트 파워로 영향을 미치는 매력적인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소프트 파워(연성권력·매력을 통해 얻는 권력)’ 개념을 처음 만든 미국의 하버드 대학 조셉 나이(Joseph Samuel Nye, Jr.) 명예 교수는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한국, 소프트 파워 타고 나 …중국 연 100억 달러를 썼지만 못해”<sup>30)</sup>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막대한 소프트 파워를 칭찬했다. 그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 중의 하나를 이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한국의 역량과 성공이 충분히 주목 받지 못했던 것 같다고 그는 안타까워했다. 어쩌면 전 세계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우리만 몰랐든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조셉 나이는 소프트 파워를 “강압이나 거래가 아니라 매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포화를 받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철의 장막을 넘어선 서구 문화와 방송에 노출됨으로써 변화된 사람들의 마음이 휘두른 망치와 불도저에 무너졌다.” 그는 소프트 파워에는 한 국가의 문화와 국내적 가치와 국제정책이란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문화 측면의 소프트 파워를 타고 났다고 생각한다. 그는 K팝과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은 예시는 이미 나왔으므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둘째, 국내적 가치와 그 적용이란 면에서도 한국은 상당한 스토리가 있는데, 우선 한국에는

---

30) 조선일보, 2021년 10월 6일.

위대한 경제적 성공이 있었고, 그것이 좀 변덕스럽지만(?) 활기차고 성공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위대한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졌다. 소프트 파워의 세 번째 차원은 한 국가의 국제정책이라면서, 특히 다른 국가를 도와주거나 다른 국가의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통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이것이 한국이 더 잘 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며 한국이 국제정책을 통해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데 탁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및 선진화를 이룬 것은 통일한국이 온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고 열방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경영자의 몇 가지 공통적 특징이 첫째, 50대가 가장 많고, 둘째,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고, 셋째, 강남에 가장 많이 살고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이 50퍼센트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유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상처받은 나라가 회복된 그 지위에서 상처 받고 고통 받는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나라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싸매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남한의 복음화와 그 결과로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이루어주신 것은 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의 제 3세계에 복음화·산업화·민주화·선진화의 모델로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로 볼 수 있다. 지금 제3세계는 자기들과 같이 식민지 지배, 전쟁과 독재 및 가난을 겪으면서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이룬 대한민국을 그들의 역할 모델로 삼고 싶어 한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한국의

산업화를 이루는 데 기초가 된 ‘새마을 운동’에 대해 관심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필자가 방문한 아프리카 지역이 특히 그러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히 제3세계를 경제적 수익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서구 제국주의가 저지른 ‘약탈적 경제’를 넘어 상생의 경제와 그들의 복음화·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적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선행해야 할 일은 그들을 복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역할이 더욱 효율적으로 되려면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전 세계에 복음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할 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세계 복음화라는 측면에서 통일이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아공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쉬(David Jacobus Bosch)는 계몽주의의 영향 하의 선교의 특징을 설명하는 가운데 인간 중심주의,<sup>31)</sup> 진보에 대한 믿음,<sup>32)</sup> 승리주의적 태도와 낙관주의와 실용주의<sup>33)</sup> 등을 지적했다. 특히 식민지적으로 군림하는 우월의식에 가득 찬 선교의 실패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우월적 군림하는 태도를 북한주민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에 방문한 독일 목사님은 독일이 통일이 되었지만 서독 사람은 일등 국민이고 동독 사람은 이등 국민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탈북민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탈북민들을 열등한 국민으로 생각하여

---

31) 보쉬, *Transforming Mission*, 432.

32) 위의 책, 428.

33) 위의 책, 527.

남한 사람들이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들과 함께 하는 선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와 태도는 바로 인간존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선교학에서 사도 바울의 ‘약함 속에서의 선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의 연약함, 봉사, 슬픔,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사역을 묘사하고 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후 12:9-10).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강조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변증법적 역동성 안에서 우리의 선교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동정심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흘러나온다.”<sup>34)</sup>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34) 위의 책, 537.

## 참고문헌

- 니콜라스 월트스트로포, 신영순 등 역, 『살롬을 위한 교육』.  
——, 홍병룡 역,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IVP.  
다니엘 밀레오리, 신옥수 역,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새물결플러스.  
루스 터커, 박해근 옮김, 『선교사 열전』.  
미로슬로브 볼프, 『배제와 포용』.  
박성규, 『평화통일의 신학적 근거로서의 기독교 화해론』.  
보쉬, *Transforming Mission*  
앤드류 커프 지음, 최동규 옮김, 『선교란 무엇인가』.  
앤터니 티슬턴(Anthony C.Thiselton) 지음, 박규태 옮김, 『조직신학』, 187-202,  
2018.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 제 1-10권』, 성염 해제.  
위르겐 몰트만 지음, 김균진 옮김,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한국신학연구소.  
——, 『생명의 영』.  
——,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덕주·조이제 편,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서울: 한들, 1997,  
이상은, 『화해론에 기반한 통일』, 나눔사  
장 지글러, 유명미 옮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정문영 옮김, 『왕국과 영광』, 새물결.  
존 스토트, 『로마서 강해』, IVP,  
주도홍, 『통일로 향하는 교회의 길』.  
칼 슈미트, 김항 옮김, 『정치신학, 그린비』.  
칼뱅, 『기독교 강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지음, 정옥배 옮김, 『에스겔 강해』, IVP.  
——, 『신명기』, 성서 유니온.  
하비 콘, 한화룡 역, 『현대도시 교회의 전망』.  
한나 아렌트, 『축복과 저주의 정치 사상』.  
——, 이진우 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